

研究論文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이상균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조선시대 문화사 전공
l96105025@korea.kr

- I. 머리말
- II. 유람의 명분
- III. 유람의 실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¹⁾들 사이에서는 국내의 유명한 명승을 찾아다니는 유람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사대부들은 유람을 즐겨 했고, 산수를 좋아하여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생성시키기도 하였다. 산수를 단순히 자연만이 아닌 정신수양과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하였다. 유람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므로 선대 유람자들이 남겨놓은 유산기를 읽거나 그림을 보고 간접체험을 하는 와유(臥遊)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람이 성행했던 만큼 전 시기에 걸쳐 유산기류(遊山記類)의 기록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현재 약 560여 편의 작품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동안 이 작품들은 대부분 개별로 분석되어 문학사 중심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으며,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람은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문화적 현상이므로 문화사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유람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장현아는 조선시대 유산기를 불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승려와 사찰의 존재 양상 등 불교계의 상황을 살폈다.³⁾ 이상배는 조선전기 서울 지역을 유관(遊觀)한 명나라 사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과 접대 방법을 살폈다.⁴⁾ 정연식은 황윤석(黃胤錫)의 『서행일기(西行日記)』와 『부직기행(赴直紀行)』을 생활사 자료로 활용하여 조선시대의 여행조건을 연구하였고⁵⁾, 이경순도 정시한(丁詩翰)이 팔공산을 유람하고 남긴 『산중일기(山中日

1) 이 글에서 사용한 ‘사대부’는 조선시대 전·현직 문·무 양반관료, 士族, 士林, 山林, 선비 등 지배층을 총괄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집문당, 1997), 15쪽에서 밝히고 있는 숫자이다. 이는 정신문화연구원(現: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雜著記說類記事索引』(1982)의 ‘類記’나 ‘類錄’ 등의 題名 아래 산을 등산하여 기록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므로 숫자 변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문집이 전하지 않는 인물의 유산 기록 누락을 배제할 수 없는 수치이다.

3) 장현아,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승려와 사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4) 이상배, 「조선전기 외국사신 접대와 明使의 遊觀 연구」, 『국사관논총』 104(2004).

5) 정연식, 「조선시대의 여행조건」, 『인문논총』 15(서울여대, 2006).

記)』를 생활사 자료로 활용하여 조선후기 유람 관행을 살폈다.⁶⁾ 김병인은 고려시대 사원의 기능 중 하나가 여행자들의 유람과 소통 공간이었다고 보고 있다.⁷⁾ 이상균은 조선전기 명나라와 일본 사신들의 금강산 유람과 그에 따른 폐해를 고찰하였고, 김홍도가 관동(關東)을 유람하면서 그린 기행사경도(紀行寫景圖)의 사료적 가치를 고찰하였다.⁸⁾ 이는 극히 적은 성과지만 역사학적 측면에서 유람과 관련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문학 분야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고, 역사학 분야에서는 단편적인 사례 연구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8세기에 접어들면 유람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유람을 행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560여 편의 유람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다. 이 기록들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작자들도 사대부들이다. 조선시대 유람자는 신분계층을 막론하고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람을 기록하고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사대부이므로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유람의 풍조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사대부들이 유람을 행할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유람 기록에는 유람을 하는 경위, 과정, 느낀 점 등이 잘 기술되어 있다. 유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람 기록을 토대로 유람자의 성향, 산수 인식, 유람과정, 시대의식 등 개인별 특징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유람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많은 사대부들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양상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연구는 조선시대 유행처럼 확산되었던 유람이 단순한 완상(玩賞)을 위한 것인지, 어떤 성격을 띤 문화행위인지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람 기록들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적 사료를 함께 분석하고 활용하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행했던 보편적 유람 양상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유람 기록이 방대하므로 작자별 성향과 시기별 특성을 개인 연구자가 모두

6) 이경순, 「1688년 정시환의 팔공산 유람」, 『역사와 경계』 69(2008).

7) 김병인, 「고려시대 行旅와 遊覽의 소통공간으로서 사원」, 『역사와 경계』 74(2010).

8) 이상균, 「조선전기 외국 사신들의 금강산 유람과 그에 따른 폐해 고찰」, 『사학연구』 101(2011); 「관동지역 기행사경도의 사료적 가치 고찰」, 『강원문화사연구』 14(2009).

분석하기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위해 사대부들이 유람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슨 목적과 어떤 기회에 결행했는가에 대한 소재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료가 작자의 특성과 시기차를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배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적시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의 분석 결과가 같은 차이를 막론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대부들의 유람 양상 몇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유람의 개념 정립을 위한 초보적 작업으로 향후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조선시대 유람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특징과 추이를 파악하는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유람의 명분

1. 탈속과 안분의 체험

변계량(卞季良)은 산을 유람하면서 “먼 산길 구름 속에 반쯤이나 들어가니 이 유람이 속세를 피하기에 족하구나!”라고 하였다.⁹⁾ 변계량은 유람을 통해 탈속의 기분을 느끼고 있다. 율곡 이이(李珥)는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는 출사(出仕)를 통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겸선천하(兼善天下)’를 이행하고, 도가 없을 때는 은거하여 ‘독선기신(獨善其身)’하는 것을 신하의 도리로 설명하고 있다.¹⁰⁾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출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출사의 길을 단념하고 퇴처(退處)해버린 사대부들도 일부 있지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이가 말하는 ‘독선기신’을 실천하는 사대부는 많지 않았다. 다만 복잡하고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나 탈속의 자유를 느끼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탈속과 안분은 사대부들이 삶 속에서 항상 지향하는 이상이었지만 현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

9) 『春亭集』 卷1 詩 「登山題惠上人院」.

10) 『栗谷全書』 卷15 雜著 東湖問答 「論臣道」. 이하 개인문집은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 및 텍스트와 번역문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고 벼슬에서 아주 물러나지 않는 한 자신만의 편한 시간을 오래도록 갖는 것도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였다. 이식(李植)은 〈한행(閑行)〉이라는 시에서 신하의 몸으로 한가히 노닐면서 일신의 안일(安逸)만 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¹¹⁾ 그러므로 사대부들은 일상 속에 여가가 생기면 잠시나마 탈속과 안분의 체험을 느끼고자 하였는데, 그 하나의 방안이 유람이었다. 변계량처럼 사대부들은 유람을 탈속과 안분의 기분을 느끼는 기회로 삼기도 한 것이다.

서거정(徐居正)은 고향집을 추억하는 시에서 벼슬살이의 시름을 벗어나 귀거래(歸去來)를 실천하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¹²⁾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 벼슬살이 시름을 내려놓고 안분을 즐기려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귀거래를 실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처한 현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이 할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김형백(金亨百)은 금강산에 들어가 바닷가의 절경들을 유람하고, 서쪽으로 묘향산에 올라 비류수(沸流水)를 굽어보는 등 옛사람의 발자취를 밟아가며 훌쩍 속세를 벗어날 뜻을 품었다.¹³⁾ 윤증(尹拯)도 비좁고 시끄러운 세상을 속히 피해 산과 계곡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생애를 누리길 싶지만 선뜻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였다.¹⁴⁾

당시 사대부들의 탈속과 안분적 성향은 윤증이 쓴 신량(申瀆)의 행장에 잘 나타나 있다.

평소에는 교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티끌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였다.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책을 두고, 소나무와 학을 길렀다.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면 시를 읊조리며 스스로 즐겼다. 평소에 산수를 좋아하여 비록 城市에 거처하더라도 취향이 일찍이 산림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풍악 등 여러 산을 유람하였다. 항상 말하기를,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물러나 살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구나. 더구나 이제 늙고 몸이 쇠하였으니, 어찌 水石이 좋은 한 구역을 얻어서 영원히 티끌세상과 이별하고, 덧집을 엮어 배회하고 노닐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까” 하였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귀거래도〉를 벽에 걸어놓고 읊조리며 회포를 부쳤다.¹⁵⁾

11) 『澤堂集』 卷4 詩 「閑行」.

12) 『四佳詩集』 卷20 第13 詩類 「憶村家」.

13) 『燕巖集』 卷7 鍾北小選 「醉默窩金君墓碣銘」.

14) 『明齋遺稿』 卷9 書 「上市南」.

15) 『明齋遺稿』 卷44 行狀 「濟用監正申公行狀」.

사대부들은 물러남의 가장 모범적인 미덕을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에서 찾고 있다. 귀거래를 통한 탈속과 안분적 삶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항상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이었다. 허균(許筠)은 중국의 은거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 『한정록(閒情錄)』에서 사대부가 산림(山林)에 참으로 은거할 마음이 없거나 은거의 정취를 체득하지 못하면 산림 자체를 질곡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이 산중에 은거하여 살았지만 세속을 다 잊지 못했고, 도연명만이 완전한 탈속을 이루었다고 평하고 있다.¹⁶⁾

임훈(林薰)은 1574년 광주목사로 재직 시 주변에 명승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공무를 보는 여가에 짚신을 신거나 가마를 타고 가서 유람하며 유연히 세속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¹⁷⁾ 김성일(金誠一)도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시를 차운하면서 반평생 관직에 매여 세상을 벗어날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며 맑은 유람(淸遊)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라도 나주 신걸산(信傑山)을 유람할 때에는 복암(伏巖)의 대(臺)에 올라 술에 취해 이 길로 벼슬자리를 내던지고 고향의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거래의 심정을 시로 읊었다.¹⁸⁾ 남구만(南九萬)은 부여의 만수산 무량사(無量寺)를 유람할 때 평소의 무궁한 시름을 다 잊었다고 시로써 슬회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가을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한익(李漢翼)을 맞으면서 읊은 시에서는 “시내 바람이 속세로 돌아가는 이한익을 전송한다”고 하여 유람을 탈속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⁹⁾ 최립(崔崝)은 금강산을 유람할 때 안문령(雁門嶺) 물재를 내려오면서 “세상에 돌아갈 생각 없고, 황룡(黃龍)의 바위 지나면서 속세의 먼지를 털었다오”라고 하여 유람을 물외(物外)를 벗는 행위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²⁰⁾

이의건(李義健)은 연하지벽(煙霞之癖: 山水癖)이 있어 젊은 시절 명산을 유람하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면 그 속에 심취하여 돌아갈 것을 잊곤 하였다.²¹⁾ 이의건과 같은 산수벽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다. 김창협(金昌協)은 젊은 시절 두 번 유람한 금강산을 항상 마음에

16) 『閒情錄』 卷4 「退休」.

17) 『葛川集』 卷4 附錄 「行狀」.

18) 『鶴峯逸稿』 卷1 詩 「次柳而見韻」·「伏巖台上醉呈白文瑞兼示左右」.

19) 『藥泉集』 卷1 詩 「無量寺」·「李皓卿漢翼自金剛還」.

20) 『簡易集』 卷8 東郡錄 「金剛山謝太熙相將到摩訶衍」.

21) 『象村稿』 卷25 墓碣銘 「峒隱李公墓碣銘」.

두고, 늙고 병이 들어서도 그리워하며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²²⁾ 이유원(李裕元)은 40년 동안 경기·관서·관동·영남·호남·호서·해서 등에 있는 경승지 곳곳을 유람하였다. 그가 지은 <춘명일사(春明逸史)>에 자신의 유람을 술회하면서 개략적으로 나열한 유람지만 60여 곳이 넘는다.²³⁾ 산수에 취해 수차례 유람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다녀온 뒤로 감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다.

유람을 가지 못하면 유산기를 대신 읽거나 산수화를 감상하는 ‘와유’를 통해서라도 탈속과 안분을 즐기고자 하였다. 사대부들이 유람을 쉽게 결행하지 못했던 것은 대부분 비용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고령(高齡)인 이유에서였다. 서거정은 관동의 간성으로 부임하는 유태수(俞太守)에게 시를 지어주면서 와유라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경승이 있는 곳으로 부임하는 유태수를 산간(山簡)의 고사에 빗대어 부러워하고 있다.²⁴⁾ 산간은 진(晉)나라 사람으로 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양양태수로 있을 때 현산(峴山) 아래 위치한 습씨(習氏)들의 양어지(養魚池) 경치가 좋아 매일 그곳에 나가 온종일 술을 마시고 유람하며 풍류를 즐겼다.²⁵⁾ 서거정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산간처럼 풍류를 즐기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해 경승에 대한 그리움을 와유를 통해서라도 달래 보려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음을 한스러워한다.

와유를 즐기는 풍조는 조선후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졌다. 조선후기의 문신인 남하행(南夏行)도 평소 산수 유람을 즐겼으나 나라 안의 산천을 모두 다닐 수 없으므로 선배들의 유산록을 모아 『와유록』을 만들어 읽었다.²⁶⁾ 경제력을 갖춘 사대부들은 자신의 집 안에 인위적으로 가산(假山)을 꾸미고 원림(園林)을 조성하여 소요자적하기도 하였다.²⁷⁾ 중국 남조(南朝)시대 송(宋)나라의 종병지(宗炳之)는 벼슬에도 나가지 않고 유람을 즐겼는데, 늙고 병이 들자 유람했던 곳의 경치를 집에다 모두 그려놓고 와유를 즐겼다고 한다.²⁸⁾

22) 『農巖集』 卷22 序 「送李璋遊楓嶽序」.

23) 『林下筆記』 卷26 春明逸史 「名山歷覽」.

24) 『四佳詩集』 卷29 第17 詩類 「寄杆城俞太守」.

25) 『晉書』 卷43 「山簡傳」.

26) 『順菴集』 卷24 墓誌 「處士潛翁南公墓誌銘」.

27)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와유를 위한 가산의 조성과 원림의 경영은 이종목의 「조선시대 와유 문화 연구」(『진단학보』 98, 2004)에 자세히 고찰되어 있다.

28) 『閒情錄』 卷5 「遊興」.

사대부들은 벼슬에서 물러나면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유람을 하면서 안분의 삶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현보(李賢輔)는 1542년 76세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만년을 강호(江湖)에 한거(閑居)하였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흥이 날 때마다 대지팡이와 짚신을 신고 산을 유람하였다.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자리를 깔고 앉아 흡족하여 기뻐하고, 두서너 잔의 술로도 만족하며 담소로 환락하는 청빈의 안분을 즐겼다. 유람할 때 시동에게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하여 표현하게 세상을 떠나서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였다. 산사(山寺) 유람을 좋아하여 최후에는 임강사(臨江寺)에 우거(寓居)하였다.²⁹⁾ 이행(李荇)이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1510년 영남(嶺南)을 유람하면서 쓴 「남유록(南遊錄)」에는 생애에 바라던 유람을 하면서 탈속과 안분을 누리는 자유를 표현한 시를 많이 남겼다.³⁰⁾

위정자(爲政者)들은 좌천(左遷)도 유람의 기회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식은 대사간을 세 차례 역임하였는데, 1632년 인조의 사친(私親)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의 추숭(追崇)이 예가 아님을 논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서 강원도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³¹⁾ 이식은 간성현감 부임 시절 동쪽 누대에 올라 시를 지으며, 금강산의 경승이 있는 곳에 현감으로 부임한 것을 장한 유람에 비유하였다. 좌천이 달갑진 않지만 한가한 벼슬을 얻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은일(隱逸)을 흉내 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며 현실을 스스로 달래고 있다.³²⁾

사환(仕宦)의 길에서 물러나거나 평생 출사를 포기하고 탈속하여 은둔하는 사대부들도 있었다. 성종·중종대에 관계에 진출한 재야사림들이 당쟁과 사회(士禍)를 피해 퇴처(退處)하거나, 출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다 생각한 사림들은 은둔하였다. 대표적 인물 15명이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중종·명종대의 유일조(遺逸條)에 실려 있다.³³⁾ 이들은 은둔처에서 정치적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고, 학문적 성취를

29) 『退溪集』 卷48 行狀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巖李先生行狀」.

30) 『容齋集』 卷7 「南遊錄」.

31) 『仁祖實錄』 9년(1631) 5월 癸未. 이하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및 원문 자료와 번역문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32) 『澤堂集』 卷5 詩 「杆城東樓作」.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은거지의 산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주변의 명승 유람을 통해 구도에 힘쓰고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였다.³⁴⁾

2. 문기 함양과 구도의 체득

사대부들에게 유람은 탈속과 안분을 체험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공명(公明)과 정사(政事)에 뜻을 품은 사대부가 실천해야 하는 청유(淸遊)이기도 했다. ‘청유’는 유람 중에서도 깨끗하고 속되지 않은 유람을 말한다. 단순히 경승과 기물을 보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인(高人)과 재사(才士)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그 성패와 득실의 사유(思惟)를 고찰하여 문장을 지을 때나 정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³⁵⁾

이유원(李裕元)은 사람에게서는 장수(長壽)와 문장, 산수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산수에 대한 욕심이 가장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명산대천에 문장이 있는 것이라 하고 오직 사마천(司馬遷)만이 유람을 잘 활용했다고 하였다.³⁶⁾ 사대부들은 사마천과 상호봉시(桑弧蓬矢)의 고사를 자주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유람목적에 피력하였다. 사마천은 20세 때 남으로 강회(江淮)에 노닐고 북으로는 문사(汶泗)를 건너 천하의 산천을 유람하였다. 이때 호한(浩瀚)의 기운을 얻어 이를 문장으로 발휘하여 『사기(史記)』를 지었다고 한다.³⁷⁾ 상호봉시는 남아가 태어나면 뿔나무 활과 쏘대 화살을 사방으로 쏘아 큰 뜻을 이루길 바라는 것을 말한다.³⁸⁾ 천지사방은 남아가 일할 곳이므로 먼 지방을 유람하는 것은 원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진취적 기상을 기르는 것이다.

임훈은 1574년 광주목사로 재직할 때 고경명(高敬命)에게 광주 무등산(無等山) 유람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유람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33) 『燃藜室記述』 卷9 中宗朝故事本末 「中宗朝遺逸」(徐敬德·柳藕); 卷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成守琛·李希顔·曹植·成悌元·趙昱·李恒·成運·韓脩·林薰·南彦經·金範·鄭喆·鄭嘯).

34) 『연려실기술』 유일조에 실린 인물들의 산수 인식은 강정화의 「16세기 유일의 산수 인식과 문학적 표출 양상」(『남명학연구』 23, 2007)이 자세하다.

35) 『四佳文集』 卷4 序 「送池先生源西遊詩序」.

36) 『林下筆記』 卷37 蓬萊秘書 「蓬萊秘書序」.

37) 『古文眞寶』 後集 「上樞密韓太尉書」.

38) 『禮記』 內則.

천하의 장관을 구경하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구하는 일은 유가(儒家)에서 할 일이라 말하고, 사마천의 문장 변화가 마치 사시(四時)에 만상(萬像)이 출현하듯 명문인 것은 유람에서 얻은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대부의 유람자세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 이후 유람하는 사람들이 그 풍류를 흠모하여 자취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으나 단지 보는 것이 못은 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푸름은 산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만 알아보니 지난 뒤에는 얻는 것이 없다. 돌이키면 한 덩이 텅 빈 몸뿐인데, 어찌 호연지기에 보탬이 있을 수 있겠는가.³⁹⁾

많은 사람들이 사마천의 풍류를 따라 유람하지만 경물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유람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유가의 유람목적과 자세는 경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이도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하면 산과 물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라 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러 떠났다고 한다.⁴⁰⁾ 즉, 사대부들은 산수 유람을 수려한 문장을 창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기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람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경물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를 습작(習作)하여 남기고 있다.

사대부들에게 제술(製述)능력은 기본 소양이었고, 과거입격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건이었다. 세조대에는 정2품 문신에게 보도록 한 발영시(拔英試)에 어제시(御製詩) 9장(章)을 출제하기도 하였다.⁴¹⁾ 현직 문신의 경우 경연(經筵)과 왕실의 행사에서 국왕과 자주 수창(酬唱)해야 했고, 외국 사신들이 올 경우 이들의 시에 응수(應酬)해야 했다. 외국 사신들의 수준에 맞추어 수창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안이였다. 사신들과의 시문 수창은 양국 문화수준의 우월성을 기념하는 척도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사신들과의 시문 수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533년(중종 28)에는 문신들이 제술을 즐겨 하지 않아 중국 사신이 올 경우

39) 『葛川集』 卷2 文 「遊澄上人遠遊序」.

40) 『宋子大全』 卷74 書 「答金永叔」.

41) 『世祖實錄』 12년(1466) 5월 己卯.

응수할 사람이 부족하여 문신들에게 자주 제술시험을 보게 하는 등 제술능력을 권면시켰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생원·진사라도 제술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 교육시켜 사신들의 수창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⁴²⁾ 1562년(명종 17)에는 시문에 능한 일본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한리학관(漢吏學官)을 지내 사장(詞章)에 뛰어났던 권응인(權應仁)을 선위사(宣慰使) 일행에 포함시켜 사신의 수창에 대비하게 하기도 하였다.⁴³⁾ 권응인은 현직 관료가 아니었지만 사장에 뛰어났으므로 사신의 수창 대비를 위해 특별히 선위사 일행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제술능력은 조선을 방문하는 사신을 맞이하는 데 중요한 외교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대부들은 이러한 제술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기 함양의 좋은 방편으로 유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542년(중종 37) 부사과(副司果) 어득강(魚得江)이 중국 사신과의 수창능력을 기르는 대비책으로 시문에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골라 유람시킬 것을 상소하고 있다. 김시습(金時習)과 사마천이 유람을 통해 문기를 크게 배양한 예를 들고,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각 지방을 유람시켜 문기를 배양시킨다면 사신의 수창에 능히 응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⁴⁴⁾

중국 사신들은 주로 조선에 오는 동안에 감상한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시를 지었다. 유람을 통해 경물을 실제로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문기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신들이 시작(詩作)의 대상으로 삼은 자연경관을 직접 본 경험이 있을 때 응수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1396년(태조 5) 권근(權近)이 표전문제(表箋問題) 해결을 위해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도 명 태조가 친히 내린 시제(詩題)로 응제시 20여 수를 지어 명 태조의 환심을 사고 조선의 문기를 크게 떨치기도 하였다. 특히 명 태조가 내린 시제 중의 하나가 ‘금강산’이었다. 권근은 이때 금강산을 유람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었다고 회고하였다.⁴⁵⁾ 이처럼 제술능력은 정치·외교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으므로 입신(立身)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대부들에게 유람은 이러한

42) 『中宗實錄』 28년(1533) 5월 丁巳.

43) 『明宗實錄』 17년(1562) 11월 丙戌.

44) 『中宗實錄』 37년(1542) 7월 乙亥.

45) 『陽村集』 卷17 序類 「送懶庵上人遊金剛山詩序」.

문기를 함양하는 행위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공자는 “仁者樂山 智者樂水”라 하여 군자의 최고 덕목인 인(仁)과 지(智)를 산수에 비유하였다. 유람을 즐긴 사대부들 대부분은 성리학 존숭을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산수는 그들에게 구도(求道)의 장(場)이었다. 사대부들에게 산수는 도체(道體)였고, 유람은 구도를 실천하는 행위로도 인식하였다. 또한 경승의 외형에만 빠져들 수 있는 완물상지(玩物喪志)의 경계를 체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색(李穡)은 독서를 유람에 비유하기도 하였다.⁴⁶⁾ 이이는 “천지의 모든 물체는 理가 있는 도체이므로, 사대부가 유람하면서 산수의 도체를 알지 못하면 산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⁴⁷⁾ 산수에 담긴 도를 깊이 이는 것이 유람을 즐길 줄 아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황은 산을 유람하는 것은 독서를 하는 것과 같고, 산을 등정하는 과정은 도의 절정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⁴⁸⁾ 조육(趙昱)도 “산을 유람하는 것은 도를 배우는 것과 같고, 이를 터득하려면 아름다운 경물에 대한 이치의 근원을 알아야 하는데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⁹⁾

사대부들은 유람을 떠나기 전 유람의 길잡이가 될 만한 전대의 유산 기록을 가지고 갔다.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서적들은 『수친서(壽親書)』를 참고하여 구비하였다.⁵⁰⁾ 『수친서』에 서적은 유람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가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대부들의 유람에는 성리서가 지참되었다. 사대부들 모두 성리학을 존숭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산을 유람하는 사상적 기반은 주자(朱子)의 유람을 본받고자 하는 유교적 이념에 있었다. 주자가 중국의 남악(南嶽)인 형산(衡山)을 유람하고 쓴 시와 유기(遊記)를 엮은 『남악창수집(南嶽唱酬集)』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의 전거가 되었다.⁵¹⁾

정구(鄭誦)는 가야산을 유람하면서 『근사록(近思錄)』·『남악창수집』·『주자연보(朱子年譜)』·『운곡기(雲谷記)』·『무이산기(武夷山記)』 등을

46) 『牧隱詩藁』 卷7 詩 「讀書」.

47) 『栗谷全書』 卷13 跋 「洪恥齋仁祐遊楓嶽錄跋」.

48) 『退溪集』 卷3 詩 「讀書如遊山」.

49) 『龍門集』 卷2 「金剛錄」.

50) 『佔畢齋集』 卷2 「遊頭流錄」.

51) 이해순 외, 앞의 책, 79쪽.

지참하여 여가에 읽었다.⁵²⁾ 남효온도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근사록』·『소학(小學)』을 가져가 사찰에서 유숙할 때 읽었다.⁵³⁾ 권호문(權好文)은 청량산을 유람하는 길에 도산서원에서 공부하며 이황을 만나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고 도학의 이치를 지도받기도 하였다.⁵⁴⁾

윤증은 유람을 가려는 손자 동원(東源)에게 반드시 책을 가지고 가서 독서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⁵⁵⁾ 이덕무는 『중용』과 『대학』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고응척(高應陟)의 “건량(乾糧) 준비가 없는 유산(遊山)은 마침내 허기가 지고 말 것이다. 즉, 『중용』·『대학』은 건량이고 백가(百家)들은 유산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⁵⁶⁾ 독서가 없는 유람은 의미가 없고, 책은 유람의 필수품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세필(李世弼)도 1704년 금강산과 강원도 영동(嶺東)을 유람하면서 예서(禮書)를 들고 가는 곳마다 강학을 하기도 하였다.⁵⁷⁾

사대부들은 성현의 도를 본받아 구도를 체득하기 위해 유람을 행하기도 한 것이다. 그 사상적 기반으로 주자의 산수 유람을 전거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대부들의 유람은 경치만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서를 지참하여 독서를 하는 등 도학적 의미를 띠기도 하는 것이다.

Ⅲ. 유람의 실제

1. 역사현장과 명현의 자취 답험

사대부들의 유람지는 주로 금강산·묘향산·소백산·지이산·청량산·한라산 등 국내의 명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많이 유람하였다. 이 산들 도처에는 불교적 사건들과 연관된 수많은 사찰과 역사유적이 남아 있었다. 사대부들은 이곳을 유람하면서 선대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 유람을

52) 『寒岡集』 卷9 雜著 「遊伽倻山錄」.

53) 『秋江集』 卷6 雜著 「智異山日課」.

54) 『松巖集』 卷5 錄 「遊清涼山錄」.

55) 『明齋遺稿』 卷29 書 「與孫東源」.

56) 『靑莊館全書』 卷6 嬰處雜稿二 「觀讀日記」.

57) 『明齋遺稿』 卷16 書 「與李君輔」.

하면서 경승과 함께 그 속에 내포된 역사현장을 답사하고 재음미하였다. 또한 앞서 다녀간 명현들의 자취를 답험하기도 한다. 사대부들의 유람은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사현장을 돌아보고, 명현의 자취를 답험하는 계기로 삼았다.⁵⁸⁾

사대부들에게 역사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었다. 태종도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하륜(河崙)이 『고려사』를 찬진(撰進)하자 “내가 전조(前朝)의 역사를 보고 권계(勸戒)를 삼으려 한다” 하여 고려의 역사를 정사에 참고하고자 하였다.⁵⁹⁾ 경연에서도 역사를 강론하였으며 사대부들은 치도(治道)를 구함에 있어 경학(經學)을 근본으로 삼고, 제자백가와 역사를 참고하였다.⁶⁰⁾ 단종대에 좌의정을 지낸 남지(南智)는 역사를 섭렵하여 이르는 곳마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고⁶¹⁾, 세조대에 관회령부사(判會寧府事) 선형(宣炯)이 특별히 1계급을 가자(加資)받는 이유 중 하나도 경서와 역사를 섭렵함 때문이었다.⁶²⁾ 이처럼 역사지식은 정사에 적용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사대부들은 사서를 탐독하여 역사지식을 획득하기도 하였고, 유람을 통해 역사현장을 직접 찾아 역사의식을 고양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유람의 주목적을 답사로 삼기도 한 것이다.

전조(前朝)의 역사현장을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유람 장소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었다.⁶³⁾ 개성은 도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고려의 풍속과 유산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조선의 왕들도 황해북도 개풍군에 있는 태조의 정비 신의왕후(神懿王后) 무덤인 제릉(齊陵)에 친제(親祭)를 다녀오면서 개성의 박연폭포와 고려의 역사유적지를 유람하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이 개성을 유람하는 주목적도 역사현장의 답험이었다. 조선전기 문신인 이응소(李承召)는 사람들이 개성을 유람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8) 사대부들이 역사현장과 명현의 자취 답험을 위해 방문한 구체적 장소와 그에 대한 평가 등 현장을 유람하고 느낀 思惟意識에 대한 내용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이혜순 외, 앞의 책)에 잘 기술되어 있다.

59) 『太宗實錄』 1년(1401) 4월 癸未.

60) 『成宗實錄』 14년(1483) 12월 丁卯.

61) 『端宗實錄』 즉위년(1452) 8월 乙酉.

62) 『世祖實錄』 7년(1461) 11월 癸丑.

63) 조선시대 사대부의 개성 유람과 관련해서는 이종목의 「조선전기 문인의 송도유람과 그 문학세계」(『한국한시연구』7, 1999)에 상세히 고찰되어 있다.

송경은 500년 옛 도읍으로 안팎에 산하의 웅장함이 있고, 옛날과 지금 인물의 자취가 있다. 이로써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가 많이 가서 유람한다.⁶⁴⁾

개성은 고려의 도읍으로 역사현장을 찾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람하는 곳을 말하고 있다.

유호인(俞好仁)은 1476년(성종 68) 봉상시 부봉사(奉常寺 副奉事)로 재직할 때 사가독서(賜暇讀書) 문신으로 선발되었다.⁶⁵⁾ 이때 함께 선발된 문신과 함께 삼각산 산방(山房)에서 독서를 마치고 돌아와 함께 유람을 계획하였는데 유람지를 개성으로 택하고 있다. 개성으로 택한 이유는 고려의 도읍을 답사하고, 남아 있는 고려의 유풍을 체험하고자 하였다. 유호인은 사가독서를 명받은 다음 해인 1477년 양희지(楊熙止)·신종호(申從護)와 함께 개성을 유람하였다.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데 참고하기 위해 『사기』·『전한서(前漢書)』·『후한서(後漢書)』 등 역사서를 구비하였다.⁶⁶⁾ 유호인과 함께 사가독서 문신으로 선발된 사람 중 허침(許琛)·권건(權健)·조위(曹偉)·채수(蔡壽)는 유호인보다 먼저 개성 유람을 떠났다. 이들 일행이 개성을 떠날 때 양희지는 “무릇 송도는 왕씨가 500년을 건국한 곳으로 고려의 풍속이 남아 있으니 궁궐, 만월대, 선죽교 등의 유적을 보고 세도(世道)의 흥폐, 인물의 성쇠, 가요의 미악(美惡)을 살펴 경계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⁶⁷⁾

남효온도 1485년 9월 벗인 우선언(禹善言)·이정은(李貞恩)과 함께 개성을 유람하면서 고려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개성에 있는 지인인 이충(李摠)을 방문하여 함께 유람하였는데, 이때 이충이 개성에 살고 있던 한수(韓壽)라는 노인을 초청하였다. 한수는 개성에 있는 고려의 고적을 잘 알기 때문에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청한 것이다.⁶⁸⁾ 남효온의 개성 유람이 답사 목적이었으므로 한수라는 노인을 초청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을 다녀오고 지은 「송경록(松京錄)」도 개성의 유적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고, 경승을 탐승하고 지은 시보다는 유적의 현상을 기술한 답사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64) 『三灘集』 卷10 序 「送永川卿遊松京詩序」.

65) 『成宗實錄』 7년(1476) 6월 乙酉.

66) 『續東文選』 卷21 錄 「遊松都錄」.

67) 『大峯集』 卷2 序 「送曹大虛蔡耆之遊松都序」.

68) 『秋江集』 卷6 雜著 「松京錄」.

정약용(丁若鏞)은 1820년 춘천을 유람하고 「산행일기(山行日記)」를 남겼다. 이 유람 기록의 대부분도 북한강 유역의 유적,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약용은 문헌고증을 통해 작성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의 초고를 1811년에 완성하고, 1836년까지 꾸준히 증보하는 등 상고사(上古史)에 관심이 많았다. 춘천을 유람하고자 한 목적도 사서에 기록된 열수(列水)의 위치 비정과 예맥국(濊貊國)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 의도가 많았다. 기존 학자들이 한강이나 대동강으로 비정하였던 열수를 춘천의 물과 화천(華川)의 물이라 고증하였다. 그리고 춘천을 낙랑(樂浪)의 남부도위(南部都尉)가 있었던 지역으로 비정하였고, 춘천의 맥국(貊國)설과 강릉의 예국(濊國)설을 부정하며 사료에 전거하여 변증하고 있다.⁶⁹⁾

사대부들은 답사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산을 유람하면서 간간히 만나는 역사현장을 확인하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금강산은 신라 화랑의 자취, 고려 태조의 설화가 얽힌 단발령(斷髮令)⁷⁰⁾, 사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무수히 많았다. 신익성(申翊聖)·남효온·이정구(李廷龜)·양대박(梁大樸) 등 금강산을 유람한 사대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얽혀 있는 장소를 만나면 사건을 고증하고 자신들의 사론(史論)을 덧붙였다.

금강산과 더불어 역사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산은 지리산이었다. 지리산은 신라와 고려의 사찰뿐만 아니라 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한 선대 역사적 인물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이었다. 지리산은 최치원과 관련된 유작(遺作)이 많이 남아 있어 유람하는 사대부들은 모두 보고자 하였다. 김일손(金翹孫)·김종직(金宗直)·조식(曹植)·양대박·유몽인(柳夢寅) 등의 지리산 유람 기록에 나타난 역사적 인물 중에 최치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여 대승을 거둔 황산대첩(荒山大捷) 등의 유적을 기념하고 있다.⁷¹⁾

사대부들은 유람을 하면서 역사 인물과 현장뿐만 아니라 근래 자신보다 앞서 유람한 인물의 자취를 찾기도 한다. 특히 사대부들은 유람 시 명유(名儒)의 자취를 돌아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윤증은

69) 『茶山詩文集』 卷22 雜評 「山行日記」.

70) 단발령은 고려 태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나다가 멀리 비로봉을 바라보며 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寺門에 입문하고자 하는 뜻을 보았다 하여 생긴 명칭이라 전한다.

71) 사대부들이 금강산과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역사현장을 답사한 내용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이혜순 외, 앞의 책)을 참조하였다.

심명중(沈明仲)이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쓴 「동유록」에 글을 써주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일찍이 “풍악은 실로 명산이지만 예로부터 명현의 유적이 하나도 없어서廬山에 濂溪, 晦翁, 陶靖節 등 여러 현인들의 流風이 있는 것과는 다르니 참으로 명산의 큰 수치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만약 율곡의 시가 없었다면 거의 조롱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네.⁷²⁾

윤증은 당시 조선 최고의 유람지인 금강산에 명현의 유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금강산은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한 유람지로 손색이 없음은 인정한다. 다만 유람 시 본받을 만한 명현의 자취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율곡의 시가 있는 것을 들어 유람 중에 선현의 자취를 보는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윤증은 1662년 자신이 관동을 직접 유람할 때도 금강산을 보고, 영월 장릉(莊陵)에 참배한 후 강릉에 가서 공자를 모신 구봉(九峯)서원과 율곡을 배향한 송담(松潭)서원에 참배하였다. 이때 남긴 ‘송담서원’이라는 시에서 관동의 금강산 경치를 극찬하면서도 옛 자취를 찾아봐도 유현(儒賢)과 관련된 곳이 없는 것을 지역의 수치라 하였다. 그나마 율곡을 배향한 송담서원이 있어 이 수치를 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704년 관동을 유람하고 있는 이세필(李世弼)에게 보내는 답신에도 대관령 아래 선현의 유적이라고는 오직 송담서원 한 곳밖에 없으니 꼭 가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⁷³⁾

이황은 “산을 오르는 유람을 통해 성현의 일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⁷⁴⁾ 유람 시 명현의 자취를 방문하여 그 행적을 본받으려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영남사림(嶺南士林)들의 청량산과 소백산 유람이었다. 청량산과 소백산은 주세붕(周世鵬)과 이황이 유람하고 은거하며 학문을 닦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⁷⁵⁾ 청량산과 소백산이 유람의 명소가 된 것도 학파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산을 찾는 유람자 대부분이 이들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72) 『明齋遺稿』 卷4 「題孤松亭沈明仲東遊錄」.

73) 『明齋遺稿』 年譜; 卷2 詩 「松潭書院」; 卷16 書 「與李君輔」.

74) 『退溪集』 卷42 序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75) 주세붕은 1544년 청량산을 유람하고 「遊清涼山錄」을 남겼고, 이황은 1549년 소백산을 유람하고 「遊小白山錄」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후대 이 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람 지침서가 되었다.

산을 유람하기 전 자신들이 명현으로 추송(追崇)하는 주세붕과 이황의 유람 기록을 참고하여 유람을 결행하면서 이들의 자취가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정구는 가야산을 유람하면서 김종직, 김굉필, 김일손 등이 남긴 시와 공부하던 곳을 보고 감회에 젖는다. 그리고 앞서 산을 유람한 사람의 자취를 돌아본다.⁷⁶⁾ 김충정(金中淸)은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이황이 이산을 자주 찾았음을 술회하며 이황의 단정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됨을 청량산에 비유하고 있다.⁷⁷⁾ 신지제(申之梯)도 청량산에서 이황이 남긴 시를 살피고 “청량산이 존경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황이 평소 왕래하며 완상하여 그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⁷⁸⁾ 이 밖에도 권호문, 김효원(金孝元) 등의 청량산과 소백산 유산기에도 주세붕과 이황의 자취를 찾아 흠모하는 내용들이 자주 보인다.

이처럼 성리학 존송을 표방하고, 학맥을 형성하고 있던 사대부들은 유람을 통해 명현의 자취를 답험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본받고자 하였다.

2. 지방관 보임지의 순유(巡遊)

사대부들은 지방관으로 보임(補任)하면 임지를 순회하면서 주변의 경승지를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⁹⁾ 최립(崔立)은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한직(閑職)인 간성(杆城)군수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동쪽 고을인 간성으로 오게 된 이유를 금강산 유람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최립은 간성군수로 있으면서 인근 고을인 흡곡(歙谷)현령 한호(韓濩)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였다.⁸⁰⁾ 정협(鄭浹)은 묘향산·지리산·오대산을 유람하고, 금강산을 세 번 유람하였는데, 모두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면서였다. 금강산은 통천(通川)수령으로 재직하면서 세 번을 유람하였다. 김창협은 정협의 유람록인 「사유록」의 제발(題跋)을 써주면서 정협이 통천수령으로 재직 시 “금강산을 세 번 유람한 것을 문체 삼는다면 송나라

76) 『寒岡集』卷9 雜著 「遊伽倻山錄」.

77) 『苟全集』卷5 記 「遊淸涼山記」.

78) 『梧峯集』卷6 記 「遊淸涼山錄」.

79) 이 글에서 ‘巡遊’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노닐다’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80) 『簡易集』卷3 書 「遊金剛山卷序」; 跋 「關東勝賞錄跋」.

주희가 남강(南康)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열흘에 한 번씩 여산(廬山)을 유람한 고사를 가지고 해명해줄 것이니 그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라고 적고 있다.⁸¹⁾ 이는 당시 수령들이 임지(任地)에서 유람을 과하게 즐겨 비관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수사(水使)들도 포구 순찰을 빌미로 유람을 일삼았다. 1479년(성종 10) 유지광(柳子光)은 수사들이 포구 순찰에 소홀하고, 악공과 기생을 배에 싣고 유람을 일삼는 폐단을 고칠 것을 상소하였다.⁸²⁾

성종대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서도 지방 수령들이 임지에서 유람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이 淸心樓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어가를 따라온 재상 2품 이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지방 강산이 가장 좋으니 만약 어진 수령이 아니면 반드시 유람에 빠져 백성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할 것이니, 잘 선택하여 제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였다.⁸³⁾

성종이 경기도 여주의 영릉(英陵)을 참배하고 청심루에 올라 주연을 베풀 때 2품 이상의 재상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경승이 수려한 지역에 수령을 보낼 때는 유람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민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가려 뽑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수령 부임뿐만 아니라 공무로 잠시 지방을 순회하는 것을 유람의 기회로 삼고 있다. 김창협도 숙종 때 경상도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변방의 산천과 백성의 풍속을 보고, 젊은 시절에 천하를 유람해보지 못한 한을 달래는 기회로 삼고 있다.⁸⁴⁾ 중종대에는 재상(災傷) 경차관이 어사를 겸하고, 마정(馬政) 조사를 담당하는 점마관(點馬官)까지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 외방에 있는 목장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유람과 유흥을 벌여 어사에게 점마관을 겸직시키는 것을 폐지하기도 하였다.⁸⁵⁾ 1796년(정조 20)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종갑(朴宗甲)은 평안북도 의주에 수재가 난 후에 여러 날 동안 묘향산을 유람하느라 피해 보고를 지체하여 비변사에서 삭직을 계청(啓請)하기도 하였다.⁸⁶⁾

81) 『農巖集』 卷25 題跋 「題鄭可叔快四游錄後」.

82) 『成宗實錄』 10년(1479) 7月 丁卯.

83) 『成宗實錄』 21년(1490) 閏9月 甲午.

84) 『農巖集』 卷12 書 「答趙成卿」.

85) 『中宗實錄』 30년(1535) 8월 壬寅.

특히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관내 각처를 수시로 순회·감독하는 순력(巡歷)이 본연의 임무였으므로 순력 시 도내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었다. 조선초기 관찰사는 야인(野人)과 접해 있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평안도와 함길도만 식솔을 거느리고 장기간 상주하면서 수령을 겸직하였다.⁸⁷⁾ 이 외에 다른 도의 관찰사는 가족을 임지로 데려가지 못하고 도내 관할구역을 순력하면서 관찰·출척(黜陟)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에는 관찰사가 감영에 유영(留營)하지 않고 연중 순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도에는 별도의 감영건물이 없었다. 이후 1638-1783년(인조 16-정조 7) 사이에 관찰사의 임무가 감영에 머물면서 춘추(春秋) 2회에 1개월 이내로 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감영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⁸⁸⁾

조선시대 관찰사로 순력하며 경관을 구경하고, 감흥을 읊은 대표적인 기행가사가 <관동별곡(關東別曲)>이다. 1580년(선조 13) 정철(鄭澈)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도내의 순력을 통해 절경들을 구경하고 <관동별곡>을 남겼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순력하면서 본 강원도의 경치와 풍속, 고사들을 노래한 것으로 정철도 순력을 통해 유람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세당(朴世堂)이 쓴 이준구(李俊耆)의 묘지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관찰사의 순력 시에는 유람이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름에 외직으로 나가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당시 嶺東에 큰 기근이 들었다. 이에 공이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환곡을 청하고, 힘을 다해 진출한 덕분에 9개 군의 백성들이 굶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공이 부내를 안찰할 때에 마부를 줄이고 유람을 정지하여 군읍의 폐단을 줄였으며, 부내로 유람 나와 방탕하게 노닐며 오래도록 머무는 측근의 높은 산하들을 맞이하지 않아서 꾸짖음을 당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⁸⁹⁾

이준구는 1665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관내를 안찰할 때 마부를 줄이고 유람을 정지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당시 관찰사의 순력에 유람이 병행되었고, 이로 인한 폐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찰사들은

86) 『正祖實錄』 20년(1796) 9월 丙午.

87) 장병인, 「조선초기의 관찰사」, 『한국사론』 4(1987), 181쪽.

88) 이희권, 「조선후기의 관찰사와 그 통치기능」, 『전북사학』 9(1985), 110-119쪽.

89) 『西溪集』 卷10 誌銘 「禮曹參判李公墓誌銘」.

순력 시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유람을 하지 못했지만 순력을 기회로 삼아 유람을 즐겼던 것이다.

사대부들은 관찰사 부임을 평소 가보기 힘든 곳을 두루 유람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인식하고 있다. 최립은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박동량(朴東亮)에게 “박공이 이제야 기막힌 유람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며,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것은 금강산 등 천하제일의 경승지를 유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축하해주고 있다.⁹⁰⁾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였던 이광준(李光俊)은 관동을 순력하며 백성의 풍속을 살필 때 여가를 내어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이때 이광준은 자신을 문안하러 온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유람하였다. 유람을 마치고 강릉을 순력할 때 부사로 있던 최립에게 금강산을 유람하며 쓴 권첩을 보여주면서 글을 써주기를 요청하였다.⁹¹⁾ 기대승(奇大升)도 관동안찰사로 가는 최경숙에게 주는 송별사에서 금강산을 유람할 기회를 얻은 최경숙이 매우 부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경숙은 안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을 두 번이나 유람하였다.⁹²⁾ 이행(李荇)은 1525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민수천(閔壽千)에게 안찰하는 여가에 필시 명승지를 샅샅이 찾아 구경하게 될 것이라 하고, 유람한 일을 자신에게 소상히 얘기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⁹³⁾

장유(張維)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김우고(金友古)를 전송하면서 답답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 명승지인 관동으로 부임하게 됨을 축하하고, 벼슬을 하면서 명승을 유람할 기회를 얻은 것을 매우 부러워하였다. 그리고 허계(許啓)의 고성군수 부임을 금강산이 있는 고을에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간 중앙의 관리로 번잡한 공무를 처리하느라 시름 쫓 적이 없었으니, 고을 다스리는 일은 여사로 하고 선경이나 유람하면서 즐기다 오라는 것이다.⁹⁴⁾

국왕인 정조도 관찰사 보임을 유람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1787년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이성원(李性源)에게 “좋은 경치 유람할 생각 오래 갖지 마오, 함경도 백성에게 은택 퍼려고 잠시 빌려준 거라오”라는

90) 『簡易集』 卷3 序 「送朴子龍公江原監司序」.

91) 『簡易集』 卷3 序 「遊金剛山卷序」.

92) 『高峯續集』 卷1 存齋謾錄 「送景肅出按關東」·「景肅以詩來寄 又有將遊楓嶽之示 奉和以呈」.

93) 『容齋集』 卷9 散文 「贈閔耆叟壽千觀察嶺東序」.

94) 『谿谷集』 卷26 七言古詩 「送關東方伯金友古」; 卷31 七言律詩 「送許沃余出守高城」.

내용이 담긴 시를 써주었다.⁹⁵⁾ 이 시는 이성원에게 외직(外職) 수행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관찰사들이 보임지에서 유람을 자주 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성원은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있다가 1787년 8월 12일에 함경도 관찰사를 제수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 의정부 우참찬을 제수받고 3개월 만에 돌아왔다.⁹⁶⁾

이식이 1641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이덕수(李德洙)를 전송하면서 지어준 시에도 관찰사들에게 순력은 유람을 병행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몸은 여전히 近臣의 반열 겸연쩍은데	自媿微踪仍近列
그대는 엄선되어 名勝의 방백이 되셨구려	方知睿簡在名藩
선경 유람이 그대의 소원은 아닐 테니	神山浪迹應非願
순선에 힘 기울여 임금 은총에 보답하오	努力旬宣答寵恩 ⁹⁷⁾

이식은 이덕수에게 다른 관찰사들처럼 순력을 유람의 기회로 삼지 말고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헌(金尙憲)도 1629년 강원감사로 있던 윤이지(尹履之)에게 시를 지어주면서 순력 시 유람에 현혹되지 말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김상헌은 자신보다 먼저 강원감사로 부임하여 관동유람의 기회를 얻은 윤이지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특히 강릉의 경포는 흥이 나서 미칠 정도의 경관을 가지고 있어 철석같이 굳은 마음도 흔들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 하고 있다.⁹⁸⁾ 즉, 강원감사로 강릉을 순력할 때 절경 유람에 빠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자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들은 외관적으로 나가는 지인들에게 전별의 뜻으로 써준 글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지방관 보임을 유람 가는 좋은 기회라고 했던 것을 단순히 전별의 아쉬움을 표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실제 많은 지방관들이 보임지를 순회하면서 유람을 행했기 때문이다. 1745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김상성(金尙星)은 관내를 순력할

95) 『弘齋全書』 卷6 詩 「賦提學李性源出按關北」.

96) 『正祖實錄』 11년(1787) 8월 丁未; 11년 12월 乙巳.

97) 『澤堂集』續集 卷5 詩 「送李觀察德洙按關東」.

98) 『淸陰集』 卷2 七言絕句 「贈關東按使尹仲素」.

때 화원을 대동하기도 하였다. 이때 그린 그림을 태백(太白), 조명교(曹命敎), 조하망(曹夏望), 김상익(金尙翼), 오수채(吳遂采), 조적명(趙迪命), 이철보(李喆輔) 등 7명의 지인(知人)들에게 회람시키고 시를 짓게 하여 2년 뒤인 1748년에 『관동십경첩(關東十境帖)』을 만들었다. 이 시화첩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관동십경은 관동팔경에 두 곳을 추가한 것인데, 김상성은 관내 순찰 시 관동팔경을 비롯한 주변경승을 유람하고 이를 화폭에 담고자 했던 것이다.⁹⁹⁾

1790년(정조 14) 장령 최경악(崔景岳)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관찰사들이 순력을 유람의 기회로 일삼는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監司라는 지는, 봄철과 가을철에 고을을 순찰하는 업무를 유람하며 관광하는 기회로 여기고, 겨울과 여름에 수령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일은 형식적인 걸치레에 불과합니다.¹⁰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관찰사의 순력이 연간 춘추 2회로 제한되자 이때를 유람의 기회로 삼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지방관은 임지를 순회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임지에서의 유람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 시 사사로이 드러내놓고 유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보임지를 순회하면서 유람을 병행했던 순유의 양상을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조선시대의 유람은 사대부들이 즐겨 하는 문화행위 중 하나였다.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유람은 단순히 경물을 완상(玩賞)하는 양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사대부들은 복잡하고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난 탈속의 자유를 느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일상 속에 여가가 생기면 잠시나마 탈속과 안분을 체험하고자 하였고, 유람을 통해 즐기고자 하였다. 늙고 여가가

99) 서울대학교 규장각 역, 『관동십경』(효형출판사, 1999), 해제.

100) 『正祖實錄』 14년(1790) 2월 甲子.

없어 유람을 가지 못하면 와유를 통해서라도 이를 즐기고자 하였다. 사환에서 물러나거나 평생 출사를 포기하고 탈속하여 은둔하였을 때도 은거지의 산수 유람을 통해 구도에 힘쓰고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람을 통해 고인과 재사의 자취를 답사하고, 사유를 고찰하여 문장을 지을 때나 정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예술능력은 정치·외교에 중요한 요소였고, 입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문기를 함양하는데 유람을 좋은 방편으로 삼기도 하였다. 사대부들 대부분은 주자의 산수 유람을 전거로 삼아 성현의 도를 본받아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구도를 위해 유람을 결행하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은 사서를 탐독하여 역사지식을 획득하고, 유람을 통해 역사현장을 직접 찾기도 하였다. 역사적 지식은 기본 소양이었고, 정사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유람을 통해 역사현장을 답사하여 역사의식을 배양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존숭을 표방하고 학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추송하는 선대 명현들의 자취를 답험하기 위해 그들의 행적이 있는 곳을 찾아 유람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은 지방관 보임을 평소 가보기 힘든 곳을 두루 유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지방관들이 관내를 순회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무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임지의 유람을 즐길 수 있었다. 공무 시 사사로이 드러내놓고 유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방관들은 임지를 순회하면서 유람을 즐겼다. 즉, 보임지 순회 시 유람을 병행했던 순유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대부들의 유람 양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모든 유산 기록을 참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밝힌 것보다 다양한 양상도 있을 것이다. 향후 사대부들의 유람 양상을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밝혀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연구 성과들이 나올 때 종합적인 유람의 개념과 인식 문제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簡易集』, 『葛川集』, 『谿谷集』, 『古文眞寶』, 『高峯續集』, 『苟全集』, 『農巖集』, 『茶山詩文集』, 『大峯集』, 『明齋遺稿』, 『牧隱詩藁』, 『四佳集』, 『三灘集』, 『象村稿』, 『西溪集』, 『續東文選』, 『松巖集』, 『宋子大全』, 『順菴集』, 『藥泉集』, 『陽村集』, 『燃藜室記述』, 『燕巖集』, 『禮記』, 『梧峯集』, 『龍門集』, 『容齋集』, 『栗谷全書』, 『林下筆記』, 『佔畢齋集』, 『朝鮮王朝實錄』, 『晉書』, 『淸陰集』, 『靑莊館全書』, 『秋江集』, 『春亭集』, 『澤堂集』, 『退溪集』, 『寒岡集』, 『鶴峯逸稿』, 『閒情錄』, 『弘齋全書』.

강정화, 「16세기 遺逸의 산수 인식과 문학적 표출 양상」. 『남명학연구』 23, 2007, 287-341쪽.

김병인, 「고려시대 行旅와 遊覽의 소통공간으로서 사원」. 『역사와 경계』 74, 2010, 1-28쪽.

서울대학교규장각 역, 『관동십경』. 효형출판사, 1999.

이경순, 「1688년 丁詩翰의 八公山 유람」. 『역사와 경계』 69, 2008, 41-72쪽.

이상균, 「조선전기 外國 使臣들의 금강산 유람과 그에 따른 폐해 고찰」. 『사학연구』 101, 2011, 127-169쪽.

_____, 「관동지역 기행사경도의 사료적 가치 고찰」. 『강원문화사연구』 14, 2009, 99-120쪽.

이상배, 「조선전기 외국사신 접대와 明使의 遊觀 연구」. 『국사관논총』 104, 2004, 221-266쪽.

이종묵,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 1997, 385-407쪽.

_____, 「조선전기 문인의 송도유람과 그 문학세계」. 『한국한시연구』 7, 1999, 255-306쪽.

_____, 「조선시대 臥遊 문화 연구」. 『진단학보』 98, 2004, 81-106쪽.

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조선중기의 遊山記 문학』. 집문당, 1997.

이희권, 「조선후기의 관찰사와 그 통치기능」. 『전북사학』 9, 1985, 87-147쪽.

장병인, 「조선초기의 관찰사」. 『한국사론』 4, 1987, 131-188쪽.

장현아, 「遊山記로 본 조선시대 승려와 사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연식, 「조선시대의 여행조건」. 『인문논총』 15, 2006, 123-143쪽.

국 문 요 약

조선시대 유람은 사대부계층이 즐겨 했던 문화행위 중 하나였다. 산수를 단순히 자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신수양과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유람을 행했던 대부분이 사대부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유람 양상을 살피는 것은 유람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람 기록들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적 사료를 함께 활용하여 유람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행했던 보편적 유람 양상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사대부들은 유람을 통해 탈속과 안분을 체험하였고, 문기를 함양하고 성리학적 입장을 견지하여 도(道)를 체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역사현장을 찾아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선현의 자취를 답험(踏驗)하기 위해 유람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가에 사사로이 유람하는 것 외에 자신의 보임지를 순유하면서 유람을 병행했던 양상을 볼 수 있다.

투고일 2011. 9. 7.

수정일 2011. 10. 28.

게재 확정일 2011. 11. 7.

주제어(keyword) 사대부(sadaebu), 유람(travel), 양상(aspect), 명분(justification), 실제(reality)